



광기 어린 예술 편력, 불행한 화가의 위대한 생애

우리말 꼭꼭 씹어 먹기

가을엔 명상록이나 시집 한 권을 책상에 올려놓고 지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가을엔 그동안 품었던 친구나 스승이나 고마운 사람이나 누구에게라도 편지를 쓰면 좋겠어요. 직접 우체국까지 걸어가서 편지를 부치고 돌아오는 길에 은행잎이나 단풍잎이라도 책갈피에 꽂아보는 것도 괜찮지요. 가을엔 그리움이 많이 자랐으면 좋겠지요. 가을엔 고독해지면 좋겠지요. 그리움과 고독이 자기를 성장시키는 '약'이란 사실은 세월이 지나면서 알게 됩니다.

결심삼 : 한 가족이 서로 나뉘어 따로 차리는 삼림. (부모님이 계속 시골에 머무르시겠다고 하는 바람에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는 그는 아내와 시골을 오가며 결심삼을 꾸러 나가기도 하였다)

땃바람 : 일이나 때를 당하여 서슴지 않고 당장의 뜻. (소식을 듣자마자 땃바람으로 달려 나갔다) 또 '일이나 때를 당하여 한 번에'라는 의미도 있어요. (땃바람에 몇 사람이 고쳐 치울 것 같은 시가지와 심한 갈증을 느끼는 것이었다.) <윤홍길, 묵시의 바다>

변죽 : 그릇이나 세간, 곡내 따위의 가장자리. (그는 젓가락으로 상의 변죽을 두드리며 흥을 돋우었다.) 관용적으로 '변죽을 울리다'라고 하면 '바로 집어 말을 하지 않고 둘러서 말을 하다'라는 뜻으로 쓰여요. '변죽을 치다'라고도 해요. (대체로 그 초점을 때리지 않고 변죽을 울려서, 은근한 가운데 함축성 있는 표현을 주로 하였다.) <이희승, 먹추의 말잡전>

인명옥사민 · 고양애고 문예창작반 강사

논술의 자신감 이 책은 꼭 읽어야 해

서머싯 몸의 '달과 6펜스'

<달과 6펜스>는 서머싯 몸이란 작가를 전 세계에 알린 결정적 작품이요, 프랑스 후기인상파 화가 폴 고갱의 삶을 토대로 한 소설로 예술에 사로잡힌 한 영혼의 광기 어린 예술 편력을 그리고 있어요. 1919년에 출판되어 대단한 인기를 끌어 유럽의 여러 나라 말로 번역되어 베스트셀러가 되었으며, 그 인기 덕분에 1915년 출판했으나 별로 주목 받지 못했던 <인간의 끝에서>도 재평가를 받게 되었죠.

이 소설은 세속의 삶과 인간의 허망한 탐욕과 위선에 관해 언급하고 있어요. 작가 몸은 런던의 문단과 사교계의 속물들, 마음은 순진해도 고뇌하는 예술 정신은 없고 잘 팔리는 그림만을 그리는 화가 스트로브, 육체적 관능만을 추구하는 불랑시, 가정을 떠났을 때 저주를 퍼부었던 남편이 천재로 알려지자 그의 아내였음을 자랑하는 스트리랜드 부인 같은 인물들을 날카롭게 풍자하고 있죠. 20세기 영국 문학사에서 가장 풍자적인 소설가로 분류되는 서머싯 몸은 영국인이 빠져들기 쉬운 속물근성이나 위선자적 경향을 냉철하고 비정한 필치로 파헤쳐가고 있어요.

이 소설의 제목 <달과 6펜스>도 생각해 보면 참 독특하죠? 제목은 서로 대립되는 세상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데 '달'은 정신의 세계, 이상의 세계, 예술의 세계, 고매한 것, 주인공이 추구하

는 예술의 최극지(最極地)라 말할 수 있고 '6펜스'는 은화의 가장 작은 단위로서 돈의 세계, 물질의 세계, 현실의 세계로 세속적인 명성을 갈망하는 감정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찰스 스트리랜드는 전형적인 런던의 증권 중개인이다. 37세의 아내와 16세 아들 그리고 14세 딸을 둔 한 가정의 아버지이다. 그는 문학 소녀처럼 미모 문인들과 사귀길 좋아하는 사교계의 전형적인 부인이자 현모양처형인 그의 아내 에이미가 속물이라고 부를 만큼 무취미하고 예술 쪽과는 담을

서머싯 몸을 세계 알린 결정적 작품 화가 폴 고갱의 삶을 토대로한 소설

쌓은 사람이다. 가정은 단란했으며 앞으로 증권 중개로 그가 벌어들이는 돈과 아내의 사랑, 또한 아이들의 건전한 성장 등에 만족하며, 평범하고 단란한 삶을 누릴 것이다. 그러나 그는 어느 날 화가의 길을 택하여, 처와 자식들을 버리고 자신도 거의 무일푼인 채 파리로 떠나게 된다. 파리에서 그는 그림에는 전념할 수 있었지만 굶주림과 병으로 인해 쓰러지고 만다.

이때 그의 천재성을 인정했던, 네덜란드의 상업 화가 테크 스트로브는 아내 불랑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를 집으로 데려가 극진히 간호하여 회복시킨다. 스트리랜드를 간호하던 불랑시는 그와 사랑에 빠지게 되어 그를 따라가겠다고 말한다.

테크는 그들을 자기 집에 살게 하고, 아내가 자기에게 돌아오기만을 기다린다. 결국 동거 생활 중에 불랑시는 음독자살을 하게 된다. 스트리랜드가 그녀를 버린 것이었다. 테크는 슬퍼하던 했지만 스트리랜드가 동거 생활 중에 그런 불랑시의 나체화에 담긴 천재성에 감탄, 그에 대한 원한도 잊고 네덜란드로 같이 가서 그림을 그리자고 한다.

하지만 스트리랜드는 마르세유로 자리를 옮겨 부랑자와 같은 생활을 한다. 우연한 기회로 배를 얻어 타고 그가 원하던 동쪽, 타히티로 가게 된다. 그곳은 그에게 고향과도 같은 곳이었다. 그는 토인 처녀 아타를 현치처로 맞아 자식을 낳는다. 그의 일생 중에 가장 행복한 때였다. 아타의 소유지에서 그는 자연에 파묻혀 그리고 싶은 것을 맘대로 그릴 수 있었다. 나병에 걸린 그는 필생의 대작을 그가 살던 오두막의 벽 전체에 걸쳐 그려 놓고 영원한 휴식을 얻을 수 있었지만 그 대작들은 그의 유언에 의해 오두막과 함께 불태워진다.

스트리랜드는 세속적인 윤리, 도덕을 훌훌 벗어 던지고 오직 예술에만 몰두한 사람이었죠. 스트리랜드는 예술이라는 높고 고매한 목표(달)에 도달하기 위해 직업, 가족, 사랑, 우정, 윤리 등 현실적인 문제들(6펜스)을 가차 없이 내던진 사람이죠. 폴 고갱을 모델로 한 작품답게 그림을 함께 보면 서글울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 작품은 고갱을 모델로 하고 있음은 틀림없으나, 그렇다고 해서 그의 전기(傳記)라고 할 수는 없어요. 고갱은 프랑스 파리 태생이고 스트리랜드는 영국사람이거든요. 인명옥사민 · 고양애고 문예창작반 강사

우리들 생각

'우리들의 생각' 코너는 사찰 게시판에 올라온 어린이,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담은 공간입니다. 불교에 비하는 점, 입사삼담과 우문제 등 주제 · 형식을 벗어나 여러분이 직접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접수 e-메일:rolling@paran.com)

키크는 방법 없나요?

중학생인데요, 키가 너무 작아서 별명 '순타리'예요. 저랑 비슷했던 친구도 안본사이 키가 훌쩍 컸어요. 매일매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운동이라든가 먹으면 좋은 음식 정보 좀 가르쳐 주세요!

키크는 방법 있어요!

중학생이면 얼마든지 키를 늘릴 수 있어요. 키가 크는다는 것은 먹는 음식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유, 밀치, 치즈 등 우유보다 편식이 없어야겠어요. 인스턴트 음식은 성장판 닫히는 게 빨리 찾아옵니다. (절대 금물이에요). 먹는 양이 너무 작아도 키 크는데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격도 느긋함이 도움 될 것 같네요. 운동은 줄넘기나 농구도 좋고요. 무엇보다 잠자리 들기 전이나 아침에 일어나면 곧바로 스트레칭을 해 주는 것도 키 크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운동 할 시간이 없으면 양팔을 머리위로 올려서 주-옥-뽀는 다음 제자리에서 풀 짜 뛰어서 보세요. 농구하는 방법과 비슷해요. 키는 유전인 경우도 있지만 규칙적인 생활과 신심의 안정에서 많은 변화가 온답니다. 먼저 규칙적인 생활이라는 것은 잠자는 시간 밥 먹는 시간 또 밥 양 운동하는 시간 등이 일정한 해야 가능한 것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본인의 마음이었지요. 키가 작다고 너무 스트레스 받는 자체가 키 크는데 도움 되지 못한다는 사실! 저도 그리 크진 않지만 대학교 때 많이 컸어요(무려 4센티미터!) 그리고 키 크는 음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먹는 양과 시간 그리고 먹을 때 즐겁게 먹는 마음이 중요 하더라고요.

기지를 하루 20번씩 하고 스트레칭을 하루 10번이라도 하면 인젠기는 효과 불 겁니다.

금희사 청소년 상담실

논술의 자신감 오감으로 떠나는 철학여행 (41회)

민도남 철학자 오감(上)
by. 경운도철

필리엄 오감(1285-1349)은 잉글랜드 런던남부 오감 출신의 프란치스코 수도회 수도사입니다.

그는 수도사들을 위한 삶의 원리를 찾아 인간과 무장하고, 화려하게 사는 교황은 이단이다.

세속주의 삶을 살아가는 교황을 비난하다 파문 당합니다.

오감을 저행하라!

넵!

교황청에 소환되면 오감은 그곳을 탈출하여...

우악! 뛰어야 산다.

목관왕에게 망명하였습니다.

당신은 왕관세 나를 지켜주세요. 나는 팬으로 당신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오감은 철학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주장을 합니다.

조건이 같다면 보다 단순한 쪽이 진리에 가깝다.

'오감의 면도날' 좀 무서운 이름이지만,

이 단순한 철학적 원리는 오늘날 우주물리학에까지 큰 영향을 미친 중요한 통찰입니다.

과학자들은 새로운 학설을 발표할 때마다, 오감의 면도날을 떠올리며 보다 단순한 이론을 진리에 가까운 것으로 채택합니다.

단순한 게 더 좋아.

오감은 이 단순함의 원리를 삶에도 적용하여 복잡한 삶보다는 단순함 속에서 보다 행복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행복하기 위해선 더 많은 것이 필요해! 많은 게 더 좋은 거야!

아닙니다. 당신은 비움수록 행복해 집니다. 단순한 삶이 행복합니다.

석청은 빵에다 발라먹는 일반 꿀이 아닙니다.



네팔산 석청은 수백년 산삼에 버금가는 약효가 있다고 합니다.

석청은 네팔 히말라야의 고산지대에서 채취되는 "꿀"을 말하며 깊은 산의 절벽이나 바위틈에서 "아피스 라보리 오사"라는 왕벌이 만들어 내는 야생 꿀이다. 네팔과 티베트의 접경지역인 해발 3500-4000m의 고산지대에서 주로 벌이 서식하며 세계에서 가장 덩치가 크고, 사나운 벌로서 꿀을 만들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신비의 물질로 알려져 왔으며 자연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라 한다. 고질병 치료, 강장식품이며 세포생성, 노폐물 제거 등 명약으로 알려져 네팔왕국에서 국가를 방문하는 외국귀빈에게 답례품으로 이용하고 있다.

공급처 : 네팔왕실-국립히말라야 석청연구소
국내보급처 : 한국불교사임총연합회, (사)호국불교단체협의회

히말라야 석청이란?

히말라야 석청(WILD HONEY)은 네팔과 티베트의 접경지역인 해발 3000m-4000m의 사람이 접근하기 힘든 고산지역의 수백미터에 달하는 기암절벽에서 채취하는 꿀로써 성경과 불경에도 이 꿀을 약용 또는 참선시 음용하는 신비의 물질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접근하기 힘든 지역만을 찾아 아피스라보리오사(APIS LABORIOSA)꿀벌이 집을 짓기 때문에 석청을 얻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단 기암절벽에 집을 지으면 수십년-수백년 동안 그 지역에서 서식을 하며 300년 이상 된 것도 있어 이런 곳에서 채취하는 석청을 효험이 큼니다.

*300년 이상 된 석청은 네팔 내에서도 구경하기조차 힘듭니다. 아마 한국의 심심산골에서 몇 백년 된 산삼을 찾는 일에 버금가는 희귀성이 있을것입니다. 가격 또한 엄청나서 이런 석청을 발견하면 뼈까지 사는 고산족 마을은 축제 분위기로 바뀝니다. 다만 워낙 귀한 꿀이라 네팔 전역에서 1년에 한 두번 발견되는 것이 고작입니다. 네팔에서는 참석청을 구하기 힘듭니다. 참석청은 1kg에 250만원정도로 보급되고 있습니다. 일반인이 취급하는 석청은 등외급입니다. * 아래의 보급 석청은 참석청입니다.

- 서울 02)3436-7845
- 중부 031)634-3519
- 대구/경북 054)464-4735
- 부산/경남 051)782-9386
- 문의 010-2039-5288, 010-5031-1355

보급가액 500g ₩ 500,000원

석청판매 수입금(석청보급가액) 중 일부는 네팔 불우청소년들(불우아동들)을 위해 적립됩니다. 석청 3명 이상 구입시 석청 채집 CD 1장을 보내드립니다.

